

職業能力開發研究  
 第15卷(2), 2012. 8, pp. 25~49  
 © 韓國職業能力開發院

## 특성화고 졸업 청년층의 취업결정요인\*

노 경 란\*\* · 허 선 주\*\*

이 연구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청년층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졸자 취업진로 조사(HSGOMS: High School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 중 취업 여부의 판단이 가능한 4,016명을 대상으로 특성화고 청년층의 취업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SPSS 18.0을 활용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 및 가정의 특성, 취업목표, 학교의 진로지도, 가정 진로지도,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구직활동과 관련된 변인을 투입하는 총 6단계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과 거주지역, 취업목표 설정 시기, 학교 성적,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의 다양성, 자격증 소지 유무, 구직활동 여부, 면접 경험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특성화고 청년층의 취업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제언하였다.

- 주제어: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결정요인, 고졸 청년층, 청년 취업, 청년층 노동시장

투고일: 2012년 06월 30일, 심사일: 07월 09일, 게재확정일: 08월 01일

\*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주최한 2012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 제1저자, 성신여자대학교 조교수 (nari123@sungshin.ac.kr)

\*\*\* 제2저자(교신저자), 영동대학교 전임강사 (hurssun@gmail.com)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고실업-저고용’ 특성이 장기화되면서 청년 실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고조되었으나 고등교육이 대중화된 한국사회의 특성상, 주로 대졸 청년의 실업 문제에 학문적·정책적 논의가 편중되어 왔다(관계합동부처, 2010a; 김안국·신동준, 2007). 그러나 청년층 노동시장 상황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자의 실업률(9.4%)이 대졸자(7.0%)보다 높고(관계부처합동, 2010b), 고졸자의 경제활동참가율(62.3%)은 대졸자(전문대졸: 82.1%, 대졸 이상: 77.8%)보다 낮으며, 고졸자의 유휴화율(31.8%) 또한 대졸자(전문대졸: 23.5%, 대졸 이상: 24.4%)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김유선 외, 2009). 고졸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졸 청년층의 취업과 관련된 제 현상, 관련 변인 간의 인과관계 규명 등과 같은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선행연구들은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전체적인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언하는 논의에 편중되어 있다. 전병유와 이상일(2003)은 고졸 미진학 청년층의 경제활동 실태를 토대로 고졸 청년 인적자원의 유희화 및 장기실업 가능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서구 선진국들의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책 방향을 제언하였다. 그러나 청년층의 근로의지 활성화가 정책의 중심이 되는 서구사회의 정책이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인수 외(2006)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과 고졸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 학력집단별로 실업의 원인이 상이하므로 학력별로 정책이 세분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학력집단별 취업지원정책 내용을 어떻게 차별화하여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취업 또는 실업이라는 과제에 직면한 고졸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해결 과정 속에 있는 고졸 청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상황적 변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과제 해결 주체인 고졸 청년 개인에게 집중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연구는 미흡하다.

한편 고졸 청년층의 취업 및 실업 관련 논의는 노동시장에서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인적자원의 공급과 수요 차원에서 바라본 교육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김세움·김진영·조영준, 2011), 청년층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 과잉 문제(김주섭, 2005) 등으로 관점을 확대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고교 졸업 후 취업기피와 대학진학 선호 풍토로 고교 직업교육의 부실과 대학의 질적 저하, 청년 노동시장에서 학력집단별 미스매치를 심화시키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고졸 청년층이 취업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졸 청년층의 취업 관련 변인의 전반적인 구조는 물론 변인의 영향력 수준 등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청년층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대졸 청년집단에 한정하였거나(박가열·천영민, 2010; 채창균·김태기, 2009; 황여정·백병부, 2008) 청년층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나의 변인으로써 학력을 투입하는 수준에 그쳐(남기곤, 2009) 고졸 청년층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진학보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 출신 졸업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특성화고를 졸업한 고졸 청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취업 또는 실업의 과제에 직면한 특성화고 졸업생이 개인적 수준에서 해야 할 취업준비행동, 특성화고를 졸업한 청년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여건의 조성 방향, 국가·사회적 수준에서의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II. 선행연구 분석

### 1. 고졸 청년층 노동시장의 특성

오늘날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취업자의 고학력화를 하나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전체 취업자 수의 규모면에서 보면 고졸 이하 집단(14,541천 명)이 전체 취업자 중 60.0%(통계청, 2011)으로 지배적이다. 그러나 취업자 수의 규모에 있어 고졸 이하의 집단은 전년도(취업자 수: 14,554천 명, 비율: 61.1%) 대비 1.1%p 감소하였다(통계청,

2010). 반면, 대졸 이상 집단의 취업자(9,704천 명)는 전체 취업자 중 40.0%(통계청, 2011)로 전년도 대비(취업자 수: 9,275천 명, 비율: 38.9%)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서 고학력 집단의 증가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력별 노동시장 특성에서 볼 수 있듯이 고졸자 집단이 양적 규모면에서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고학력의 청년층의 증가 추세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추이(2006년: 3,747천 명, 2007년: 3,710천 명, 2008년: 3,612천 명, 2009년: 3,456천 명, 2010년: 3,425천 명)를 보면 전체적으로 취업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상황도 긍정적이지 않다. 학력별로 구분하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집단(2006년: 1,772천 명, 2007년: 1,653천 명, 2008년: 1,546천 명, 2009년: 1,430천 명, 2010년: 1,422천 명)은 대졸 이상 집단(2006년: 956천 명, 2007년: 1,013천 명, 2008년: 1,023천 명, 2009년: 1,042천 명, 2010년: 1,051천 명)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취업자 규모가 감소하고 폭도 커서 청년층 전체의 취업자 감소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층의 실업률을 학력으로 구분해 보면 2009년 고졸 청년집단의 실업률(9.4%)이 대졸 청년집단의 실업률(7.0%)보다 2.4%p 높았고, 전년도의 경우 두 집단 간(고졸 청년집단: 8.1%, 대졸 청년집단: 6.2%)의 격차가 1.9%p였지만 두 집단 간 격차는 전년도 대비 더욱 벌어졌다(관계합동부처, 2010b). 청년층의 취업자 규모와 실업률을 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고졸 청년층의 실업 과제가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논의가 필요하다.

청년층의 학력별 취업 특성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고자 종사 산업과 직업현황을 파악한 결과, 종사 산업을 보면 고졸 청년층은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36.2%)의 종사 비중이 가장 높고 광업·제조업(26.3%)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졸 청년층은 운수업·통신업(19.4%), 금융보험업(10.3%), 교육서비스업(21.6%) 등 근로환경과 근무조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가 많은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유선 외, 2009).

청년층의 종사 직업을 학력별로 구분해 보면, 고졸 청년층의 경우 판매서비스직 종사 비중이 전체의 43.9%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생산직(21.3%)이 잇고 있으며 단순노무직(13.7%)의 종사 비중도 상당히 높다. 이와는 달리 대졸 청년층은 사무관리전문직 종사 비중이 58.3%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생산직(8.7%)이나 단순노무직(3.7%)의 종사 비중이 낮다(김유선 외, 2009). 고학력 청년층이 고등교육을 통하여 획득한 전문적인 지

식과 서비스를 활용하는 일자리로 배치된 것은 고등교육 참여자 개인이나 국가·사회적 수준에서도 기대가 충족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졸 청년층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 경험을 통한 숙련 가능성과 경력개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령대의 범위를 청년층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면, 직업 진입초기인 청년층을 벗어나도 여전히 직업분포 구조와 수입구조상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력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종사 직업분포가 관리자(고졸: 16.9%, 대졸 이상: 72.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고졸: 10.4%, 대졸 이상: 66.8%), 사무직 종사자(고졸: 27.8%, 대졸 이상: 49.7%), 단순노무 종사자(고졸: 60.4%, 대졸 이상: 4.7%)로 학력 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보상에 있어서도 고졸자와 대졸자 간의 격차를 살펴보면 1980년대의 19~31만 원 수준에서 1990년대에는 37~57만 원 수준, 2000년대에는 60~100만 원 수준으로 과거에 비하여 대졸자와 고졸자 간 임금 수준의 격차가 점차 벌어져 왔다. 이와 같이 학력에 따라 직업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배치 및 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사실적으로 현존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고학력 청년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공급 과잉, 고졸 청년층의 공급 부족 등과 같은 구조적 인력수급 불일치, 대학등록금과 사교육비 지출 등 사회 전체에 팽배해 있는 과도한 교육비 지출과 같이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고용’ 관련 문제 해결방안으로 고졸 청년층 취업활성화가 부각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0c). 고졸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졸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에 처해 있지만 그 속에서 노동시장 진입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고졸 청년층의 취업결정요인을 도출하는 것은 인력양성기능으로써의 교육과 인력배치·활용기능으로써의 고용 간에 지금까지 한국사회에 누적되어 있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를 도출하는데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 2. 청년층 취업결정요인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취업 주체가 지니는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연구에서 청년·고령과 같은 연령(노경란·박용호·허선주, 2011; 엄동욱, 2008), 장애 여부와 같은 신체적 특성(신현욱, 2011), 경력단절여성·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상황적 특

성(박성재·김화순, 2008; 오은진, 2009) 등으로 구직자를 세분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의 주된 대상인 특성화고를 졸업한 청년층의 연령으로는 청년, 상황으로서는 고졸이라는 특성을 지니는 집단이다. 고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동부에서 추진한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학력에 따른 취업률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취업에 '학력'이 중요한 요인임을 규명하였으나 고졸 청년집단의 취업 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김혜원·이병희·윤자영, 2009). 권혜자 외(2008)의 연구에서는 학력별로 취업준비생의 규모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양적 규모를 기술한 수준일 뿐 취업준비생의 특성 규명은 대졸 청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고졸 청년층의 특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남재량(2008)은 학력별로 신규 졸업자의 취업 특성을 분석하였으나 취업자 규모, 실업률, 이직률, 입직률, 종사상 지위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정작 이러한 취업 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고졸 청년층에 초점을 맞춰 취업결정요인을 규명한 연구들도 일부 수행되었다. 이상은(2003), 강순희·노홍성(2000) 등의 연구를 통하여 고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훈련이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함을 밝혔으나 분석에서 연령 범위를 20~24세로 한정하였고, 직업훈련 이외의 변인을 포함시키지 않아 분석이 정교하지 못하였다. 김유선 외(2009)는 직업교육, 직장체험 등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규명하였으나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기되어 온 인구통계학적 배경 변인(Biggeri et al., 2001)을 정교하게 통제하지 않았고 직업교육과 직장체험과 같이 직업능력개발 관련 요인만 한정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각 요인이 취업에 미치는 개별 변수의 영향값만을 분석하여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고졸 청년층의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한 장선욱(2009)은 직업훈련 이외에도 고졸 청년층의 성별, 계열, 자격증 취득 여부, 구직활동 수행 경험, 일 경험 등 다양한 변수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통계분석 수준이 기술적 통계에 머물렀고, 개별 변수 각각의 영향력만을 도출하였을 뿐 관련 변인 간 영향 정도를 분석하지는 못했다.

고졸 청년층의 취업결정요인과 관련 연구는 고졸 청년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청년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하나의 집단으로써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대졸 청년 실업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동일한 연령에 속하지만 학력이 다른 집단인 대졸 청년층의 취업결정요인 관련 연구(남기곤 외, 2010;

채창균·김태기, 2009; 황여정·백병수, 2008)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고졸 청년층의 개인적 특성, 고교생활, 진로지도, 구직활동, 직업능력개발 등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영향 정도를 면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 Ⅲ. 연구방법

#### 1. 분석 자료 및 변인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졸자 취업진로 조사(HSGOMS: High School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고졸자 취업진로 조사는 고교 졸업자 중 고교졸업 후의 경제활동인구의 범위에 포함되는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로 표본을 선정하여 국가 단위로 진행된 자료이며 고졸 청년층을 위한 직업지도·직업훈련 등과 같이 교육·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2). 고졸자 취업진로 조사는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취업결정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사용하였다.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표 1>과 같이 변인을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독립변인은 개인 및 가정의 기본적인 특성, 취업목표, 학교의 진로지도 및 가정의 진로지도,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구직활동으로 설정하고, 종속변인은 취업 여부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및 가정 특성으로는 성별, 거주지역, 부모의 학력, 월평균 가계소득을 구성하였으며, 취업목표는 취업목표 유무와 설정시기로 구성하였다. 학교의 진로지도는 학교교육 만족도, 진로지도 만족도, 취업지원 만족도, 학교 만족도, 학교성적으로 구성하였으며, 가정의 진로지도는 가정 진로지도 경험과 빈도, 진로준비행동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직업관련 교육 및 훈련은 경험 유무와 경험 시간, 다양성, 유익성, 자격증 소지 유무를 포함시켰으며, 구직활동에는 구직활동 여부와 시간, 일자리 지원 경험, 면접 경험을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개인과 가정 그리고 학교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변인들과 실천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변인들로 구성하였다.

고졸자 취업진로 조사는 고졸 청년층 중 진학자 및 군 입대자를 제외한 특성화고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진학을 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거나 구직을 준비하는 특성화고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취업 여부의 판단이 가능한 4,01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1> 변인 구성 및 관련 문항

변인 구분		관련 문항 및 구성
취업 여부		◦ 더미: 1=취업, 0=미취업
개인 및 가정 특성	성별	◦ 더미: 1=남성, 0=여성
	거주지역	◦ 더미: 1=수도권, 0=비수도권
	부모학력(부)	◦ 연속: 1=무학, 2=중졸, 3=고졸, 4=초대졸, 5=대졸 및 대학원 졸
	부모학력(모)	◦ 연속: 1=무학, 2=중졸, 3=고졸, 4=초대졸, 5=대졸 및 대학원 졸
	가계소득 (현재 월평균)	◦ 연속: likert 9점 척도(0=소득 없음, 1=100만 원 미만, 2=100~200만 원 미만, 3=200~300만 원 미만, 4=300~400만 원 미만, 5=400~500만 원 미만, 6=500~600만 원 미만, 7=600~1000만 원 미만, 8=1000만 원 이상)
취업 목표	취업목표 유무	◦ 더미: 1=있음, 0=없음
	취업목표 설정 시기	◦ 연속: likert 3점 척도 (1: 1학년~3: 3학년)
학교 진로 지도	학교교육 만족도	◦ 연속: likert 척도 4항목(교육과정, 기자재 활용, 학교 시설 및 환경, 교사 교육 및 지도 방식)의 평균(1: 매우 불만족~5: 매우 만족)
	진로지도 만족도	◦ 연속: likert 척도 6항목(교과목, 강연, 정보 제공, 진로 검사, 직업체험 경험, 진로상담)의 평균(1: 매우 불만족~5: 매우 만족)
	취업지원 만족도	◦ 연속: likert 척도 5항목(기술 및 자격증, 상담, 정보 제공, 구직 스킬, 취업 알선 및 동행 지도)의 평균(1: 매우 불만족~5: 매우 만족)
	학교 만족도	◦ 연속: likert 척도(1: 매우 불만족~5: 매우 만족)
	학교성적	◦ 연속: likert 척도(1: 하위권~5: 상위권)
가정 진로 지도	가정 진로지도 경험	◦ 가정의 진로 관련 지도 경험 여부(적성 및 흥미 관련 대화, 직업 및 학과 관련 대화, 가족의 직장 방문, 진로 관련 정보 찾기) 관련 4개 항목의 합(0개 ~ 4개)

<표 계속>

변인 구분		관련 문항 및 구성
	가정 진로지도 빈도	◦연속: likert 척도 4항목(적성 및 흥미 관련 대화, 직업 및 학과 관련 대화, 가족의 직장 방문, 진로 관련 정보 찾기)의 평균(1: 전혀 없다~5: 거의 매일)
	진로준비행동	◦연속: likert 척도 7항목(인터넷 검색, 직업인 연락, 영상 자료, 직업 종사자와의 대화, 상담, 진로검사, 기술 및 자격증 취득)의 평균(1: 전혀 없다~5: 매우 많음)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경험 유무	◦더미: 1=있음, 0=없음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경험 시간	◦연속: 총 참여 시간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의 다양성	◦연속: 참여 개수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의 유익성	◦연속: likert 5점 척도 (1: 전혀 도움 안 됨~5: 매우 도움)
	자격증 소지 유무	◦더미: 1=있음, 0=없음
구직활동	구직활동 여부	◦더미: 1=있음, 0=없음
	구직활동 시간	◦연속: 주당 평균 시간
	일자리 지원 경험	◦연속: 지원 횟수
	면접 경험	◦연속: 면접 횟수

##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종속변인인 취업 여부가 이항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총 6단계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학교 측면에서 직업 관련 교육 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실천적인 활동으로 고려할 수 있는 변인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모형이다. 개인 및 가정의 특성-진로지도-직업교육-구직활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특성화고 졸업 청년층의 교육-노동으로의 이행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형 I에서는 개인 및 가정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을 투입하였고, 모형 II에서는 취업목표와 관련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리고 모형 III에서는 학교의 진로 지도와 관련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모형 IV에서는 가정의 진로지도와 관련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또한 모형 V에서는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변인을 투입하였으며 최종 모형인 모형 VI에서는 구직활동과 관련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이와 같이 설정된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표 2> 연구모형

종속변인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모형 V	모형 VI
취업 여부	개인 및 가정 특성	취업목표	학교의 진로지도	가정의 진로지도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구직활동

## IV. 연구 결과

### 1. 기술통계

특성화고 졸업 청년층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변인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먼저 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약 75%인 3,036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및 가정특성 중 성별은 남성이 약 55%(1,670명), 여성이 약 45%(1,366명)로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역은 수도권이 32%(972명), 비수도권이 68.0%(2,064명)으로 약 70% 정도가 서울 및 경기 지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의 학력이 어머니의 학력보다 약간 높지만 평균 학력이 고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은 월 평균 200만 원~300만 원의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취업 목표와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면 전체의 44% 정도가 취업목표를 설정하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2학년 시기에 취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지도와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면, 학교의 진로지도 중 취업지원 만족도(평균 3.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진로지도 만족도(평균 3.53), 학교교육 만족도(평균 3.44), 학교 전반에 대한 만족도(평균 3.42), 학교 성적(평균 3.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학교의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의 진로지도를 살펴보면 학교의 진로지도 만족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진로지도 중 가정 진로지도의 빈도(평균 2.95)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는 진로준비행동(평균 2.72), 가정 진로지도의 경험(평균 2.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면 경험 유무(평균 0.12)는 매우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참여 시간(평균 18.18)로 약 18시간 정도를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의 참여는 약 평균 1.37개로 1인당 평균 1개~2개의 수준에서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의 참여의 유의성(평균 4.04)은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약 80%를 상회하는 정도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구직활동과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면 구직활동은 약 27% 정도만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직을 위해 활동하는 시간은 주당 약 4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지원 경험은 평균 2회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면접 경험 또한 평균 1.5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특성화고 졸업 청년의 변인별 기초 분석

변인 구분		관련 문항 및 구성	기술통계	
			평균	표준 편차
취업 여부		◦ 더미: 1=취업, 0=미취업	0.75	0.43
개인 및 가정 특성	성별	◦ 더미: 1=남성, 0=여성	0.55	0.50
	거주지역	◦ 더미: 1=수도권, 0=비수도권	0.32	0.47
	부모학력(부)	◦ 연속: 1=무학, 2=중졸, 3=고졸, 4=초대졸, 5=대졸 및 대학원 졸	3.05	0.83
	부모학력(모)	◦ 연속: 1=무학, 2=중졸, 3=고졸, 4=초대졸, 5=대졸 및 대학원 졸	2.92	0.71
	가계소득 (현재 월평균)	◦ 연속: likert 9점 척도(0=소득 없음, 1=100만 원 미만, 2=100~200만 원 미만, 3=200~300만 원 미만, 4=300~400만 원 미만, 5=400~500만 원 미만, 6=500~600만 원 미만, 7=600~1000만 원 미만, 8=1000만원 이상)	2.98	1.33
취업 목표	취업목표 유무	◦ 더미: 1=있음, 0=없음	0.44	0.50
	취업목표 설정 시기	◦ 연속: likert 3점 척도 (0: 1학년~2: 3학년)	2.11	0.54
학교 진로 지도	학교교육 만족도	◦ 연속: likert 척도 4항목(교육과정, 기자재 활용, 학교 시설 및 환경, 교사 교육 및 지도 방식)의 평균(1: 매우 불만족~5: 매우 만족)	3.44	0.69

<표 계속>

변인 구분		관련 문항 및 구성	기술통계	
			평균	표준 편차
	진로지도 만족도	◦연속: likert 척도 6항목(교과목, 강연, 정보 제공, 진로검사, 직업체험 경험, 진로상담)의 평균(1: 매우 불만족~5: 매우 만족)	3.53	0.40
	취업지원 만족도	◦연속: likert 척도 5항목(기술 및 자격증, 상담, 정보 제공, 구직 스킬, 취업 알선 및 동행 지도)의 평균(1: 매우 불만족~5: 매우 만족)	3.62	0.46
	학교 만족도	◦연속: likert 척도(1: 매우 불만족~5: 매우 만족)	3.42	0.84
	학교성적	◦연속: likert 척도(1: 하위권~5: 상위권)	3.06	1.11
가정 진로 지도	가정 진로지도 경험	◦가정의 진로 관련 지도 경험 여부(적성 및 흥미 관련 대화, 직업 및 학과 관련 대화, 가족의 직장 방문, 진로 관련 정보 찾기) 관련 4개 항목의 합( 0개~4개)	2.01	1.24
	가정 진로지도 빈도	◦연속: likert 척도 4항목(적성 및 흥미 관련 대화, 직업 및 학과 관련 대화, 가족의 직장 방문, 진로 관련 정보 찾기)의 평균(1: 전혀 없다~5: 거의 매일)	2.95	0.21
	진로준비행동	◦연속: likert 척도 7항목(인터넷 검색, 직업인 연락, 영상 자료, 직업 종사자와의 대화, 상담, 진로 검사, 기술 및 자격증 취득)의 평균(1: 전혀 없다~5: 매우 많음)	2.72	0.82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경험 유무	◦더미: 1=있음, 0=없음	0.12	0.32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경험 시간	◦연속: 총 참여 시간	18.18	4.69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의 다양성	◦연속: 참여 개수	1.37	0.34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의 유익성	◦연속: likert 5점 척도 (1: 전혀 도움 안 됨~5: 매우 도움)	4.04	0.06
	자격증 소지 유무	◦더미: 1=있음, 0=없음	0.81	0.39
구직 활동	구직활동 여부	◦더미: 1=있음, 0=없음	0.27	0.44
	구직활동 시간	◦연속: 주당 평균 시간	4.21	2.51
	일자리 지원 경험	◦연속: 지원 횟수	2.21	1.14
	면접 경험	◦연속: 면접 횟수	1.51	0.80

## 2. 특성화고 졸업 청년의 취업성공요인

특성화고 졸업 청년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첫째, 개인 및 가정 특성과 관련된 변인이 투입된 모형 I에서는 성별과 거주지역이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의 학력과 가계소득 수준은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성공에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인 성별과 거주지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졸자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고졸자에 비해 취업에 성공하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목표와 관련된 변인이 추가로 투입된 모형 II에서는 개인 및 가정 특성 중 성별과 거주지역 변인이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변인으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추가로 투입된 취업목표와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면, 취업목표가 있는 특성화고 졸업자가 그렇지 않은 특성화고 졸업자에 비해 취업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 다른 변인인 취업목표 설정 시기의 경우, 취업목표 설정 시기가 이르면 이룰수록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셋째, 학교의 진로지도 관련 변인이 추가로 투입된 모형 III에서는 앞서 제시한 모형 I과 모형 II에서 개인 및 가정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이었던 성별과 거주지역, 취업목표 관련 변인 중 취업목표 설정 시기가 여전히 유의미한 변인으로 유지되었다. 이와 더불어 추가로 투입된 학교 진로지도 관련 변인 가운데 학교교육의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변인이 취업성공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지원 만족도와 학교성적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특성화고 졸업자가 고교 재학시절 제공된 취업지원 서비스에 만족할수록,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취업성공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은 아니라 할지라도 학교 진로지도 관련 변인 가운데 유일하게 부적 영향을 미친 변인인 '학교교육 만족도' 변인에 대한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보면 특성화고 졸업자는 재학시절 학교교육에 불만족할수록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의 진로 의사결정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자신이 경험한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졸업 후의 진로를 진학이 아닌 취업으로

결정하여 취업성공을 위해 준비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관련 변인이 추가로 투입된 모형 IV에서는 이전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던 모든 변인들이 유지되었다. 그리고 추가로 투입된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변인이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수혜 경험과 진로준비행동은 취업성공 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수혜 빈도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진로지도에 포함되는 변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지만 부적 영향 변인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정에서의 진로지도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취업성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정을 내리기보다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가정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진로지도 방법의 적합성,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한 점검, 특히 가정 내 진로지도의 주체인 부모의 진로지도 관련 지식과 기술 수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의 진로지도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은 물론 자녀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 강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직업교육 및 훈련 관련 변인이 추가로 투입된 모형 V에서는 이전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 변인이 모두 그대로 유지되었고, 추가로 투입된 직업교육 및 훈련 관련 변인은 모두 취업성공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교육 및 훈련 참여 다양성'과 '자격증 소지 유무' 변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취업성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의 다양성은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 중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은 단순 취미활동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이 아닌 직장을 갖기 위한 취업, 창업 또는 직장에서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장연수, 학원 수강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진로와 관련된 실무적인 능력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은 해당 분야에 대한 준비 또는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이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구직활동 관련 변인이 추가로 투입된 모형 VI에서는 이전 모형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 변인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취업지원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직활동 관련 변인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취업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변인에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로 투입된 구직 관련 변인은 면접 경험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취업성공에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특성화고 졸업자가 그렇지 않은 특성화고 졸업자보다 구직활동에 시간을 많이 소요할수록, 일자리 지원 경험이 있는 고졸자가 그렇지 않은 고졸자보다 취업성공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 중 '구직활동 여부'는 취업성공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구직활동 여부, 구직활동에의 소요 시간, 일자리 지원 경험 등은 구직활동의 적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구직활동의 기본인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 구직 지원 의사결정에서의 눈높이 조정 실패 등이 구직활동에 소요하는 시간과 회차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진로탐색 및 노동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구직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면접 경험의 경우, 구직활동 관련 변인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접참여 경험이 면접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관련된 역량이 증진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의 최종 모형인 모형 VI의 결과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특성화고 졸업자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이 0.499배, 수도권에 거주하는 특성화고 졸업자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특성화고 졸업자에 비해 1.356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목표 설정 시기가 이룰수록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가 0.826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성적이 높은 경우가 학교성적이 낮은 경우에 비해 1.132배, 직업교육 및 훈련에 다양하게 참여한 특성화고 졸업자가 참여한 직업교육 및 훈련의 다양성이 낮은 특성화고 졸업자에 비해 2.202배, 자격증을 소지한 특성화고 졸업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고졸자에 비해 1.633배의 수준으로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 경험이 없는 특성화고 졸업자가 구직활동이 있는 특성화고 졸업자에 비해 0.288배, 면접 경험이 많은 특성화고 졸업자가 면접 경험이 많지 않은 특성화고 졸업자에 비해 1.141배 취업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4&gt;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결정요인 분석 결과

변인 구분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B	Exp(B)	B	Exp(B)	B	Exp(B)
상수		1.165	3.206	1.639	5.150	.099	1.104
개인 및 가정 특성	성별	-.768***	.464	-.756***	.469	-.685***	.504
	거주지역	.189*	1.208	.175*	1.191	.218*	1.244
	부모학력(부)	.038	1.039	.037	1.038	.014	1.014
	부모학력(모)	.034	1.035	.033	1.034	.031	1.031
	가계소득(월평균)	.043	1.044	.044	1.045	.031	1.032
취업 목표	취업목표 유무			.074	1.077	.020	1.020
	취업목표 설정 시기			-.237*	.789	-.211**	.810
학교 진로 지도	학교교육 만족도					-.076	.927
	진로지도 만족도					.025	1.025
	취업지원 만족도					.225*	1.252
	학교 만족도					.101	1.106
	학교성적					.197***	1.217
가정 진로 지도	가정 진로지도 경험						
	가정 진로지도 빈도						
	진로준비행동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경험 유무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경험 시간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의 다양성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의 유익성						
	자격증 소지 유무						
구직 활동	구직활동 여부						
	구직활동 시간						
	일자리 지원 경험						
	면접 경험						
N		4,019		4,019		4,019	
-2log likelihood		4355.396		4343.871		4293.453	
Model chi-square		166.234***		127.758***		178.177***	

&lt;표 계속&gt;

변인 구분		모형 IV		모형 V		모형 VI	
		B	Exp(B)	B	Exp(B)	B	Exp(B)
상수		.103	1.108	-2.808	.060	-2.938	.053
개인 및 가정 특성	성별	-.685***	.504	-.715**	.489	-.694***	.499
	거주지역	.219*	1.244	.216*	1.241	.304**	1.356
	부모학력(부)	.014	1.014	.018	1.018	.010	1.010
	부모학력(모)	.030	1.031	.029	1.029	.063	1.065
	가계소득(월평균)	.031	1.032	.028	1.028	-.014	.986
취업 목표	취업목표 유무	.015	1.015	-.012	.988	.076	1.079
	취업목표 설정 시기	-.210**	.810	-.206**	.814	-.191*	.826
학교 진로 지도	학교교육 만족도	-.077	.926	-.084	.919	-.087	.916
	진로지도 만족도	.023	1.023	.015	1.015	.014	1.014
	취업지원 만족도	.224*	1.251	.204*	1.227	.142	1.152
	학교 만족도	.100	1.105	.074	1.077	.049	1.050
	학교성적	.196***	1.216	.168***	1.183	.124**	1.132
가정 진로 지도	가정 진로지도 경험	.002	1.002	-.002	.998	-.004	.996
	가정 진로지도 빈도	-.007	.993	-.002	.998	.076	1.079
	진로준비행동	.012	1.012	-.001	.999	.061	1.063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경험 유무			.101	1.106	-.031	.969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경험 시간			.007	1.007	.007	1.007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의 다양성			.812**	2.252	.789**	2.202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의 유익성			.405	1.500	.547	1.728
	자격증 소지 유무			.488***	1.630	.491***	1.633
구직 활동	구직활동 여부					-1.246***	.288
	구직활동 시간					-.019	.982
	일자리 지원 경험					-.049	.952
	면접 경험					.131*	1.141
N		4,019		4,019		4,019	
-2log likelihood		4293.375		4252.093		4020.870	
Model chi-square		178.255***		219.536***		450.759***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청년층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취업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설정한 모형별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특성 가운데 성별과 거주지역이 특성화고를 졸업한 청년층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청년층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안주엽·홍서연(200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연구대상을 대졸자에 한정된 오세규(2003)의 연구 결과와 상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충된 연구 결과가 도출된 원인으로 연구대상 범위의 차이를 거론할 수 있다. 즉, 대졸 청년 노동시장과 고졸 청년 노동시장 사이에 성별 수요, 거주지역에 따른 일자리 규모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성별차이를 고려하면 대졸 남성 청년의 경우 대학 재학시절 군복무를 마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성화고를 졸업한 남성 청년의 경우 고교를 졸업한 후 군복무의 의무와 취업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러한 남성에게 군복무 의무가 부여되는 독특한 상황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대졸 청년 노동시장과 달리 고졸 청년 노동시장의 경우, 안정적인 장기근무 가능성이 높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취업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른 한편으로 조사 시기의 차이를 하나의 원인으로 제기할 수 있다. 오세규(2003)의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2000년에 조사된 자료로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의 조사 시점과 10년 이상의 차이가 있다. 1970년 이후 지난 40년 동안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실업률과 고용률이 높았던 해는 없지만 여성 고용률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의 변화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성별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는 고용지원에서 성별에 따른 서비스의 세분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우위 또는 열위를 특정한 성에 고정시켜 논의하기보다 해당 시점에서의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해

야 할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하여 취업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고용 동향분석'에서 서울(44.6%), 인천(42.7%), 경기(42.7%) 등 수도권 지역에서 청년 고용률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높다는 결과와 유사하다(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인력수급정책과, 2011). 2003년 이래로 지역 간 고용률 격차가 축소되는 추이가 유지되고 있지만(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인력수급정책과, 2011) 여전히 고용과 관련하여 수도권 쏠림현상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지역 특성 맞춤형 인재양성, 지역 맞춤형 고용 서비스 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선언적·당위적 수준에서가 아니라 실천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취업목표의 설정 시기가 이룰수록 특성화고를 졸업한 청년층의 취업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취목표가 성취 관련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Elliot & Church, 1997)이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취업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취업목표를 설정한 시기가 취업성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취업목표를 빨리 결정할수록 취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업준비행동을 구체화할 수 있고, 취업목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긴장, 갈등의 기간을 단축시켜 상대적으로 빨리 심리적 안정을 찾아 직업준비행동에 매진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결과로부터 특성화고 취업준비생이 취업목표를 조기 설정할 수 있도록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이고 계열성 있는 진로지도 서비스를 준비하여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특성화고를 졸업한 청년층의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취업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졸 청년층으로 대상을 한정시킨 연구 결과(남기곤 외, 2010; 박가열·천영민, 2010; 채창균·김태기, 2009; 황여정·백병부, 2008)와 유사한 것으로 고졸자나 대졸자 모두 학업성적이 개인의 성실성, 인지적 능력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지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성화고를 졸업한 청년층 스스로 학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업에 충실히 임하는 기본적인 생활태도를 갖추고 학업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개인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가정 진로지도와 관련하여 특성화고를 졸업한 청년층에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가정 진로지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제공하는 진로지도에 대한 수혜 경험이 취업에 긍정적으로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성화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가정 진로지도가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함을 반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가정에서 진로지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 관련 지식 및 노하우를 익힐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 등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특성화고를 졸업한 청년층의 다양한 직업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취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직업교육 및 훈련에 다양하게 참여한 경험, 자격증 소지 유무 등이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직업교육 및 훈련의 참여 경험은 박기열·천영민(2010), Fernandez(2006) 등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지만 남기곤(2009)의 주장과는 상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소지 유무는 강순희·박성재(2002), 박기열·천영민(201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지만 채창균 외(2005), 황여정·백병부(2008) 등의 연구 결과와는 상충된다. 직업교육 및 훈련의 참여나 자격증 취득 등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이지만 기존의 대졸 청년 노동시장 중심에서 고졸 청년 노동시장, 특히 특성화고를 졸업한 청년층이 진출하는 노동시장으로 논의의 초점을 전환해서 살펴본 결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특성화고 청년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직업교육 및 훈련의 확충, 자격증 취득 기회의 확대 및 자격증의 내실화 또는 전문화 등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구직활동과 관련된 변인 중 구직활동 경험 여부와 면접 경험의 축적이 특성화고를 졸업한 청년층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직활동 경험이 없을수록 취업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을 위해 접촉한 고용주의 숫자와 같은 직업탐색강도가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Schwab et al., 1987)와 상충된다. 그러나 면접기술을 포함한 구직기술은 구직자가 직업을 구하는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술로 구직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소이므로 구직기술 능력의 획득과 축적을 강조한 장성은(2006), Latham(1985) 등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구직활동 여부, 구직활동에의 소요 시간, 일자리 지원 경험 등은 구직활동의 적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구직활동의 기본인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 구직 지원 의사결정에서 눈높이 조정 실패 등이 구직활동에 소요하는 시간과 회차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진로탐색 및 노동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질적으로 우수한 구직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특성화고를 졸업한 청년층의 취업은 개인과 기업 간의 개별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학교나 지역, 또한 다양한 기관이 매개가 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구직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취업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욱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나 지역, 다양한 기관에서는 학교-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성화고를 졸업하는 청년층이 개인적으로 구직활동 및 면접을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모의면접이나 인사담당자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순희·노홍성(2000). 「직업훈련의 취업 및 임금효과」, 『노동경제논집』, 제23권 제2호, 124~151쪽, 한국노동경제학회.
- 강순희·박성재(2002). 『청년층의 학교교육과 직무의 일치, 제1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움 자료집』, 중앙고용정보원.
- 고용노동부(각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인력수급정책과(2011). 『11년 상반기 지역고용 동향분석』.
- 관계합동부처(2010a). 『청년 내 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
- \_\_\_\_\_ (2010b). 『현 고용상황 평가 및 향후 고용정책 방향』.
- \_\_\_\_\_ (2010c).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정책과제』.
- 권혜자·김두순·이주현(2008). 『청년층 고용문제와 정책과제』, 한국고용정보원.
- 김세움·김진영·조영준(2011). 『학력별 노동시장 미스매치 분석과 교육제도 개선 과제: 고등교육기관 및 전문계고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김안국·신동준(2007). 「고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 취업 실태」, 『산업노동연구』, 제13권 제2호, 125~148쪽. 한국산업노동학회
- 김유선·권혜자·김종진·이명규(2009). 『고졸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김주섭(2005).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정 실태 분석」, 『노동정책연구』, 제5권 제2호, 1~29쪽, 한국노동연구원.
- 김혜원·이병희·윤자영(2009).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실태 및 효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한국노동연구원.
- 남기곤(2009). 「청년층 미취업자 특성에 관한 분석」, 『산업노동연구』, 제15권 제2호, 99~123쪽, 한국산업노동학회.
- 남기곤·윤진호·이시균(2010). 「대학 재학 중 활동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경제발전연구』, 제16권 제1호, 143~172쪽, 한국경제발전학회.
- 남재량(2008).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노경란·박용호·허선주(2011). 「대졸 청년층의 대학 재학 중 경험한 교육서비스와 직

- 장이동과의 관계 분석: 첫 직장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제30권 제1호, 29~49쪽, 한국직업교육학회.
- 박가열·천영민(2010). 『대졸자 취업 영향요인 분석』, 『고용과 직업연구』, 제3권 제1호, 29~59쪽, 한국고용정보원.
- 박성재·김화순(2008). 『탈북이주민 직업훈련의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현욱(2011).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지체장애인 취업결정요인 분석 연구』, 『장애와 고용』, 제21권 제3호, 119~152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안주엽·홍서연(2002).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노동경제논집』, 제25권 제1호, 47~74쪽, 한국노동경제학회.
- 엄동욱(2008).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오세규(2003). 『대졸자의 취업확률 결정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은진(2009).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성공요인 및 경로분석』, 여성부.
- 이상은(2003). 『청년들에 대한 직업훈련의 취업 및 근로소득 효과』, 『사회복지정책』, 제23집, 5~28쪽,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장선욱(2009). 『계열선택과 고졸청년의 취업관계분석』,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성은(2006).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전문대학생의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병유·이상일(2003). 『고졸 미진학청년층의 고용·실업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정인수·남재량·이승우(2006). 『고졸 이하 청년층 실업 실태 파악 및 정책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통계청(각년도).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 채창균·김안국·오호영(2005).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I): 대졸 청년층의 노동이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창균·김태기(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제28권 제2호, 89~107쪽, 한국직업교육학회.
- 한국고용정보원(2012). 『2011년 고용 및 고용서비스 동향』 『고용동향브리프』, Febtuary 창간호, 2~27쪽, 한국고용정보원.

- 황여정 · 백병부(2008).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1권 제2호, 1~23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Biggeri, L., Bini, M. & Grilli, L.(2001). The transition from university to work: A multilevel approach to the analysis of the time to obtain the first job,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Vol.164 No.2, pp. 293~305.
- Elliot, A. J. & Church, M, A.(1997). A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2, pp. 218~232.
- Fernandez, C.(2006). The role of education vis-a-vis job experience in explaining the transitions to employment in the Spanish youth labour market, *Spanish Economic Review*, Vol.8 No.3, pp. 161~187.
- Latham, V. M.(1985). *The role of personality in the job search proces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57th, Chicago, II, May 2~4, 1985.
- Schwab, D. P., Rynes, S. L. & Aldag, R. J.(1987). *Theories and research job search and choice*, In Rowland K, Ferris G. Research in personnel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5, pp. 129~166, Greenwich, CT: JAI Press.

abstract

---

## The Research on Employment Determinants of Specialized Highschool Graduates

Roh Kyounggran

Hur Sunjoo

This study aimed to analyze employment determinants of specialized highschool graduates and to discuss how to improve their employability.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data of 4,016 cases which their employment status can be discerned from HSGOMS(High School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produced by KEIS(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were analyzed using the b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Personal and family's characteristics, employment goal setting, career interventions of the graduated highschool/their own family,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job search activities were analyzed as employment determinants. The research results showed gender, residential district, employment goal setting juncture, school record, participation 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experiences of job searching/job interview as significant employment determinants of specialized highschool graduates.

**Key word:** Specialized highschool graduate, Employment determinants, Highschool graduate, Youth employment, Youth labor market

